



함평골프고 3학년 '슈퍼루키'
신지애(18·하이마트·사진)가 자
신의 학교가 있는 함평에서
KLPGA 우승에 도전한다.

신지애는 오는 27일(목)부터 3
일간 호남 최초의 양잔디 골프장
인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파72, 7,130야드)에서 열리는
KLPGA 정규투어 대회인 KB 국
민은행 스타투어 3차 대회(총상
금 2억원, 우승상금 3천600만원)
에 출전한다.

■ KLPGA 스타투어 3차대회 27일 함평 다이너스티CC서 개막

'슈퍼 루키' 신지애 시즌 3승 도전

홍진주·홍란 등 국내 정상급 총출동

MBC ESPN서 전라운드 생중계

이번 대회에는 국내 프로 117명과 아마
추어 3명 등 총 120명이 출전해 승부를 가
린다.

특히 현재 상금순위, 대상, 신인상 부문
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지애가 재
학중인 고등학교가 있는 함평에서 열리는
이번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3개 부문 1
위를 굳세게 지킬지 여부에 벌써부터 광
주·전남지역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지애는 올해 태영배 한국여자오픈에
서 우승하며 '내셔널타이틀'을 획득해 단
숨에 '슈퍼루키'로 부상 했으며 PAVV인
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우승, 국내외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신지애는 올 시즌 9개대회에 출
전, 우승 2회, 준우승 2회, 3위 2회 등 8개
대회에서 '톱10'에 들며 상금 2억4천여만
원을 획득, 상금순위 1위와 대상, 신인왕 0
순위에 올라있다.

신지애는 "프로데뷔 후 첫 라운딩을 함
평다이너스티CC에서 했기 때문에 꿈한
마음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인은 항상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004년 KLPGA 대상, 신인상, 상
금왕 3관왕을 차지하며 화려한 루키 시즌
을 보낸 송보배(20·슈페리어)가 강한 도
전장을 던지고 있어 이 둘의 대결에도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 SK엔크린솔룩스인비테이셔널
에서 감격의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낸 뒤 한
것 자신감이 올라 있는 양진주(23·삼화자축은행·
PRGR)가 시즌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강경남은 오는 28일(목)부터 4일간 나주
에 위치한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파 72, 7,
061야드) 회원제 코스에서 열리는 '2006 중
흥S-클래스 골드레이크 오픈(총상금 3억원,
우승상금 6천만원)'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대회에는 국내프로 94명과 외국인선
수 15명, 주천프로선수 9명, 아마선수 1명 등
총 143명이 출전해 우승을 다투다.

지난 SBS코리안투어 토마토저축은행 제
피로스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첫 우승

KPGA 스타들도 전남 온다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 오픈 28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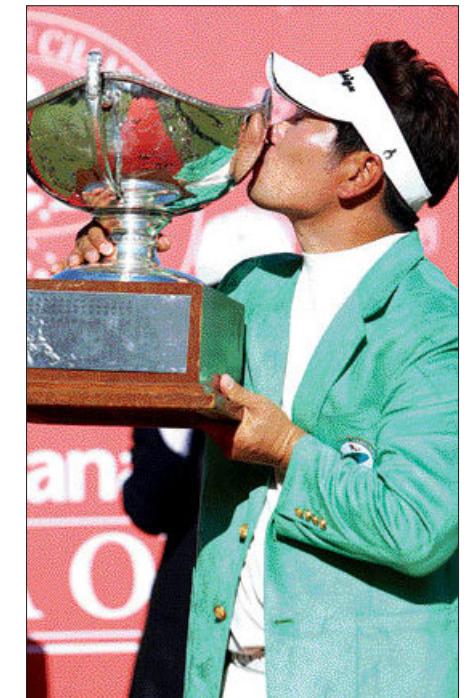
강경남 시즌 2번째 우승 노려

을 맛본 강경남은 최근 끝난 코오롱·하나은
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3
위에 머물렀지만 물오른 샷 감각을 자랑하
고 있다. 강경남은 지난 해 준우승을 포함 랭
킹 10에 8번 오르는 꾸준한 성적으로 상금랭킹
7위를 했고, 올 해 역시 준우승 두번과 랭킹
6번 이름을 올리는 등 기복없는 성적으로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에서 2위를 기
록한 강지만(30·동아회원권)과 상금 선두
신용진(42·LG페션)의 도전도 만만찮다.

'여기에 지난해 상금왕 '독사' 최광수와 신
용진의 '노장대결'도 팬들에게는 관심의 대
상이다.

한편 이번대회는 SBS골프채널에서 28일
부터 10월 1일까지 전라운드를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용은 우승

한국오픈골프 최종

양용은(34·게이지지자인·시진)이 4년 만
에 국내 골프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양용은은 24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
(파71·7천86야드)에서 열린 제49회 코오롱
·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1언더파 70타를 쳐 4리운드 합계 14언
더파 270타로 강지만(30·동아회원권)을 3
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04년부터 일본프로골프(JPGA) 투어
에 진출해 최근까지 통산 4승을 쌓았던 양용
은은 국내 대회에서는 2002년 SBS최강전
이후 통산 두 번째로 막보는 우승이다.

작년 '토종'인 최광수가 초청 선수로부터
4년 만에 되찾은 내셔널타이틀대회 우승컵
을 이번에는 '일본파'가 가져간 셈. 특히
양용은은 우승 상금이 2억원으로 사상 최고
인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시즌 상금액이 2억
3천400만원으로 상금 랭킹이 3위로 급상승
했다.

강경남(23·삼화자축은행)과 강지만이 3
타차 공동 2위로 출발해 양용은을 압박했으
나 양용은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를
이승식을 거둔 강경남과 강지만은 이번 대
회 우승으로 한국프로골프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금액 3억원 돌파를 노렸지만 무산되
고 말았다.

세계골프랭킹 6위 레티피 구센(남아공)은
이글과 더블보기를 번갈아 작성하면서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합계 8언더파 276타로 남
영우(33·지산리조트) 등과 공동 6위에 올랐다.

괴력의 드라이브샷으로 갤러리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장타력 1
위의 버바 윗슨(미국)은 합계 6언더파 278
타로 원명호(22·삼화자축은행)와 공동 10
위에 입상했다.

2002년 SK텔레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
하기도 했던 사이먼 에이즈(스코틀랜드)는
파5인 5번홀에서 두 번째 샷이 흔들, 행운의
알바트로스를 작성해 200만원을 타기도 했
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미현 7언더파 4위
선두 카리웹과 6타차

LPGA 롱스드럭스챌린지 3R

김미현(29·KTF)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코리안군단에 10승을 안겨 줄
마지막 희망으로 남았다.

김미현은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
포니아주 댈러스 블랙호크골프장(파72·6천
2120야드)에서 열린 롱스드럭스챌린지 3라
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로 5언더파를
쳐 중간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전날 공동 15
위에서 4위그룹으로 뛰어 올랐다.

하지만 전날 공동 선두였던 카리 웹(호
주·시진)은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중
간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공동 2위
모건 프레셀(미국)과 마리아 요르트(스웨
덴·이상 8언더파 208타)를 5타차로 따돌리
며 우승컵에 성큼 다가섰다.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도 김미현과 함께
중간 합계 7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라 힘
겨운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1,2리운드에서 끌쭉날쭉한 스코어 카드를
적어냈던 김미현은 3라운드 들어서는 보기
없이 전반에 2개, 후반에 3개의 버디를 잡아
내는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다.

강지민(26·CJ)은 4타를 줄여 6언더파
210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 전날까지 공동
선두였던 장정(26·기업은행)은 버디 2개를
보기 4개로 바꾸는 부진 속에 5언더파 211타
로 정밀미(34·기아골프)와 함께 공동 11위
까지 쳐졌다.

박세리(29·CJ)는 버디 1개로 1타를 줄인
2언더파 214타를 쳐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
지 못하고 공동 20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환상의 리듬체조 로프 연기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회 유럽리듬체조 선수권대회에서 불가리아의 류보프 차
카쉬나 선수가 환상적인 로프 연기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 라이더컵 3연패 눈앞

이로써 유럽은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
에서 4점반 추가하면 2002년과 2004년 대
회에 이어 3회 연속 라이더컵을 품에 안겨
된다. 이 대회에서는 승리에 1점, 무승부에
0.5점을 부여된다.

특히 가르시아는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
(스페인)과 짹을 이룬 포볼 경기에서 미국
의 필 미켈슨-크리스 디마르코조를 1홀차로
따돌리고 승리한데 이어 루크 도널드(잉글
랜드)와 짹을 이룬 포섬경기에서도 미켈슨-

데이비드 톰스조를 1홀차로 물리쳐 이번
대회 4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활약을 펼쳤
다.

또 잉글랜드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케이시는 데이비드 하웰(잉글랜드)과 한 조
가 된 포설경기에서 213야드짜리 14번홀(파
3)에서 4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그대로 흘
로 빨려 들어가는 흘인원을 기록했다. 라이
더컵 역사상 다섯번 째 흘인원.

이 덕택에 케이시-하웰조는 스튜어트 싱

크-잭 존슨조를 4홀을 남기고 5홀을 앞서는
완승을 거뒀다.

미국은 세계랭킹 1,2위로 구성된 타이거
우즈-짐 퓨리조 유럽의 파드리그 해링턴
(아일랜드)-폴 맥긴리(아일랜드)조를 포섬
에서, 존슨-스콧 버틀랭크조가 해링턴-헨릭
스텐손(스웨덴)조를 포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한편 두 팀은 최종일에 12명의 선수
가 1대1 맞대결을 펼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